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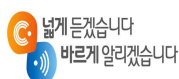
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배 포 시	배 포 일시	2021. 9. 15.(수) 09:0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김경록 (044-215-2850)	담당자	신태섭 사무관 (sts3031@korea.kr) 신채용 사무관 (shinchy@korea.kr) 박영우 사무관 (paxkoreana@korea.kr)
	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장우철 (044-201-3317)		좌명한 사무관 (greatjmh@korea.kr) 이중곤 사무관 (leejgo917@korea.kr)
	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 서정훈 (044-205-3831)		서은주 서기관 (myjoo82@korea.kr)
	국무조정실 국토정책과장 정재원 (044-200-2235)		임정환 서기관 (trade149@korea.kr)
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동훈 (02-2100-2830)		김경문 사무관 (kimkm88@korea.kr)
	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김길용 (044-204-3401)		박현수 사무관 (phsooo7@nts.go.kr)
	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손제한 (02-3150-2068)		김우석 경정 (knpkws@police.go.kr) 정세곤 경감 (karneval22@police.go.kr)
	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(02-2133-7010)		이민경 팀장 (minklelee16@seoul.go.kr)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이준수 (02-3145-8020)		김형원 팀장 (hwonleon@fss.or.kr)

제목 : 「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」 개최

□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.15(수) 08:00 정부서울청사에서 「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」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

- ①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부문 현장애로 개선방안
- ② 전월세 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안착 지원방향
- ③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

※ [붙임] 모두 발언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□ 지금부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

< 최근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 >

□ 지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(8.25일) 이후 약 3주간 사전청약 10.1만호 확대(8.25일), 한은 기준금리 인상(8.26일), 신규택지 14만호 발표^{*} (8.30일), 가계대출 관리 강화^{**}, 美 Fed 연내 테이퍼링 가시화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조치들이 잇달아 발표

* 공공택지 민간분양 8.7만호 + 2.4대책(3080+) 분양 1.4만호, 연내 6천호 이상 시행
 ** 의왕군포안산 4.1만호, 화성진안 2.9만호, 인천구월2 1.8만호, 화성봉담3 1.7만호 등
 *** 농협의 신규 주담대 취급 중단(8.24~11.30일), 신용대출 한도 축소 지도(연소득 범위내 8.13일~) 등

☞ 중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모멘텀과 조치가 이어지도록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

< 금일 논의 안건 >

□ 오늘 회의에서는

- ①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을 위한 민간부문의 현장애로 개선방안,
- ②전월세 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안착 지원방향,
- ③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을 중점 점검함

□ 첫 번째 안건은 “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을 위한 민간부문 현장애로 개선 방안”임

- 기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공급 및 이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 이에 정부는 그간 전문가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, 축적^{*}하였으며, 제기된 애로사항을 ①도심주택 공급확대 ②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는 2갈래로 해소코자 노력

* 부총리(8.4일), 국무총리(8.27일), 국토부장관(9.9일) 등

- ① 먼저 1~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,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·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
- ② 또한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 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,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

☞ 이번 민간부문의 공급 애로해소를 통해 현장의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, 금일회의 결과를 반영한 상세내용은 11시에 국토부에서 별도 브리핑 예정

□ 두 번째 안건은 “전월세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안착 지원방향”임

- 정부는 6.1일부터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임대인-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 왔으며 제도안착을 위해 노력중

- ① 제도 시행 이후 8월까지 총 29만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* 이에 따라 전월세 정보량(거래량)도 증가** 추세

* 임대차 신고건수: (6월) 68,353건 (7월) 104,677건 (8월) 119,418건

** 전월세 정보량(확정일자+신고제) : ('20.6~8월) 546,405건 ('21.6~8월) 615,260건<전년동기비 +13%>

- ② 갱신계약 임차인의 76.9%가 인상률 5%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점검 및 보완대응도 필요

☞ 정부는 전월세 가격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,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 나가고자 함

□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“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”임

- 8월중 가계대출은 +8.5조원 증가하여 전월(153조원)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,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*으로 향후에도 대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촘촘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

* 연도별 8월 가계대출 증가액(조원) : ('18)6.6 ('19)6.5 ('20)14.3 ('21)8.5

**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,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목표준수 점검,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

☞ 정부는 DSR 강화 등 既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非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.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임

(모두발언은 여기까지임)